

## 제주도 인력·조직 확대 불구 공기관 대행사업 의존 커져

대행사업비 2015년 1533억→올해 2753억 80% 증가  
조례 없어 집행부 권한 산정·집행·정산 투명성 문제

제주특별자치도가 조직·인력 증대에도 불구 공기관 대행사업비 비중이 늘면서 업무 떠넘기기가 심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관련 조례가 없어 투명성 문제도 제기되면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고철주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과 김동욱 제주대 회계학과 교수가 발표한 ‘제주지역 재정분석을 통한 세출효율화 방안’ 등에 따르면 제주도의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2015년 1533억원에서 2019년 2753억원으로 4년새 80%(1220억원)나 급증했다.

공기관 대행사업은 주로 공공부문 효율성을 높이고, 인력절감과 전문성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행정시 포함) 공무원수는 2013년 5095명에서 2015년 5254명, 2017년 5594명, 2018년 5835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공무원직 근로자도 2000명을 넘고 있다.

제주도 공직자 인건비만 2013년 4584억원에서 2015년 5137억원, 2017년 5926억원, 2018년 647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등 공기관 대행사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매해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늘고, 올해도 추경예산을 포함하면 3000억원을 넘지만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은 관련 조례가 없어 제주도의 고유 집행권한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때

문에 공기관 대행사업비에 대한 산정·집행·정산 등에 있어 투명성 문제가 제기됐고, 목적의 다른 용도로 유용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도는 공기관에 대행사업 수수료로 10% 정도를 지불하면서 매해 200억원 이상을 낭비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원도 예산심의마다 “공무원수 증가에도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공무원들이 귀찮은 일은 출자·출연기관에 떠넘기기 때문”이라며 “마치 공기관의 사업 예산을 부풀려 주는 등 공생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다.

고 책임연구원과 김 교수는 공기관 대행사업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 △대행사업 운영평가 △대행사업 적정성 검토 및 평가 △실적보고·정산 △대행기관 선정기준 △대행수수료 책정기준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용현 기자



제18호 태풍 ‘미탁’이 제주를 향해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1일 오전 서귀포시 중문 앞바다 파도가 거세지고 있다.

연합뉴스

## 태풍 ‘미탁’ 영향권…2일 오후 최대 고비

2일 오후 8~9시께 제주 서쪽 해상 최근접…소형급 유지

3일까지 최대 600mm 폭우…도·소방·해경 비상근무 돌입

제주도가 1일부터 북상하는 제18호 태풍 ‘미탁’의 영향권에 든 가운데 태풍이 제주와 가장 가까워지는 2일 오후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태풍의 영향으로 3일까지 강풍과 함께 최대 600mm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돼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미탁’은 1일 오후 3시 현재 중국 상하이 남남동쪽 약 32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22km로 북진하고 있다.

중심기압 975hPa, 중심 부근 최대풍속 초속 32m, 강풍반경 310km, 강도 ‘중’의 중형급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후 ‘미탁’은 2일 오후 3시 서귀포 서쪽 약 180km 부근 해상까지 진출한 뒤 3일 새벽 목포에 상륙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미탁’은 수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주도 남쪽해상을 지나면서 세력이 다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진로대

로라면 2일 오후 8~9시 제주 서쪽 해상을 지나며 제주와 가장 가까워지겠다.

제주 해상을 지날때 태풍의 세력은 중심기압 980hPa, 중심 부근 최대풍속 초속 29m, 강풍반경 280km, 강도 ‘중’의 소형급이다.

제주에는 오는 3일까지 태풍의 직간접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오는 3일까지 150~300mm, 산지 등 많은 곳은 6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고, 시간당 30~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예상돼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등에 대비해야겠다.

2일과 3일 사이 최대순간풍속 초속 35~45m의 강풍도 불어 시설물 피해, 안전사고, 농작물 피해도 우려된다.

해상에서도 2일부터 최대 7~9m에 이르는 물결이 일 것으로 예측됐다.

기상청은 2일 오전을 기해 제주도 육상과 제주도 앞바다에 태풍 예비특보를 발표했다.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오전 원희룡 제주지사 주재로 태풍 북상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가졌다.

제주방해양경철청은 1일부터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으며, 제주도소방안전본부도 2일부터 긴급구조 대응체제에 돌입한다. **관련기사 5면** **한권 기사**

기획 / 도·서·관 <13> 9면

## 2공항 갈등, 1차산업 경쟁력 강화 국감 도마위

국회 국토교통위 8일 이어 농해수위 15일 제주시 국정감사

소관사항 등 도정 전반 점검…국방위 18일 해군기지 방문

찬·반 갈등이 심화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비롯해 안정적인 상·하수도 공급, 쓰레기 처리대책, 1차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등이 올해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민선7기 원희룡 제주도경의 주요 정책 및 지역현안 해결 방향을 점검하는 국회 국정감사가 오는 8일부터 제주도청에서 열린다.

상임위원회별로는 8일 국토교통위원회, 1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잇따라 제주를 찾아 도정 회의실에서 국정감사를 벌인다.

지난 2016년에 이어 3년만에 다시 제주에서 국감을 진행하는 국토교통위원회는 4년째 찬·반 대립이 이어지는 제2공항 추진과 주민갈등 해소 방안, 버스 준공영제 등 제주형 대중교통체

계 개편 성과 및 문제점, 인구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상·하수도 공급과 쓰레기 처리 등 기반시설 문제 등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5년만에 제주를 찾는 농해수위 역시 도정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FTA 체결에 따른 1차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최근 잦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1차산업 피해 복구대책,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 추진 현황 등을 다룰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위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국정감사를 오는 14일 국회에서 실시기로 했다. 박훈석 기자



## 제11회 제주물 세계포럼

The 11<sup>th</sup> Jeju Water World Forum

2019. 10. 10~11  
라마다 프라자 제주호텔

### 화산섬의 지하수 보전과 활용

2019. 10. 10 THU

Day 1

개회식

기조강연 [JPDC 취수원관리와 사회적 가치실현]

주제발표 [수자원 가치 창출과 사회 공헌]

- 한국의 자연기원 좋은물 발굴 및 가치고도화 연구
- 하와이 주민들의 물보호 : 과거와 오늘
- JPDC - 유네스코의 물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공헌

2019. 10. 11 FRI

Day 2

주제발표 [글로벌 수자원 보전 · 관리 동향]

- 에비앙의 취수원관리와 연구활동
- 하와이주의 수문지질과 지하수 고도화 연구동향
- 제주도 물수지분석 개선방안 제안
- 하와이주의 물공급 시스템